

도는 30~80%로 되어 있어 저자들에 따라 크게 다르다. 저자들은 해상력이 우수한 pin-hole 조준기를 이용한 갑상선 신틸그라피 사진에 나타난 추체엽의 출현빈도와 그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 여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은 1979년 3월 이후 만 2년간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에서 시행하였던 갑상선신틸그라피중 정상이거나, 신틸그라피상 미만성 갑상선종대(goiter)를 보인 200예이었다. 냉소(cold area) 또는 열소(hot area)에 의해서 갑상선의 형태가 변형되었거나 신틸그라피상 갑상선의 형태가 불분명할 정도로 섭취율이 낮았던 예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갑상선 신틸그라피는 $^{99m}\text{-pertechnetate} (^{99m}\text{TcO}_4)$ 3 mCi를 전주정맥에 주사한 다음 10~15분후에 pin-hole 조준기를 부착시킨 Ohio Nuclear 회사제 Sigma 410 Gamma Camera로 실시하였다.

저자들의 성적을 정리해 보면

1) 신틸그라피 사진에 나타난 추체엽의 빈도는 200예 중 104예, 즉 52%이었다.

2) 추체엽은 갑상선 좌엽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50예 (48.1%), 그 다음 협부 33예 (31.7%)와 우엽 21예 (20.2%)의 순위로 관찰되었다. 한편 좌엽 또는 우엽에서 나온 추체엽 71예의 위치를 보면 각 선엽(lobe)의 내측 상연의 내 1/2에서 관찰된 것이 51예 (71.8%)이었고, 외측 1/2에서 관찰된 것이 12예 (16.9%)이었으며, 선엽의 첨부(apex)에서 관찰된 것은 8예 (11.3%)이었다.

3) 추체엽의 형태는 막대형이 57예 (54.8%)로 가장 많았고 삼각형이 42예 (40.4%)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5예 (4.8%)에서는 곤봉처럼 보였다.

4) 추체엽의 축은 수직방향인 것이 60예 (57.7%)로 가장 많았고, 내측으로 향한 것이 39예 (37.5%)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5예 (4.8%)에서는 외측으로 향하고 있었다.

5) 추체엽의 길이는 1~2 cm 인 것이 44예 (42.3%)로 가장 많았고, 2~3 cm 인 것이 36예 (34.6%), 3 cm 이상 또는 1 cm 미만인 것이 각각 13예 (12.5%)와 11예 (10.6%)이었다. 또한 추체엽의 너비는 0.5~1 cm 인 것이 78예 (75.0%), 0.5 cm 미만 또는 1 cm 이상인 것이 각각 12예 (11.5%)와 14예 (13.5%)로 0.5~1 cm 범위의 것이 가장 많았다.

6) 끝으로 좌우 갑상선엽과 그에 부착되어 있는 추체엽과의 유기적인 조직학적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체엽이 좌우 어느 한 선엽에서 나타난 정상군 50

예와 선종대를 일으킨 군 21예를 대상으로 추체엽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그 성적을 보면, 선엽의 길이 5 cm 이하의 정상군과 5 cm 이상의 선종대군에서 추체엽의 길이는 각각 1.64 ± 0.66 cm 과 1.77 ± 0.67 cm 로 나타났으며, 이들 측정치의 차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미만성 갑상선종대 변화는 고유 갑상선엽에만 국한되어 일어나고 추체엽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을 가리키는 성적으로 고유 갑상선엽과 추체엽 사이에 유기적인 조직학적 연결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각종 갑상선질환에서 혈청 Thyroxin 결합글로부린치에 관한 연구

원자력병원 동위원소과

홍 성 운

갑상선질환에서 갑상선기능을 평가하는데 혈중 T_3 , T_4 , 유리 T_4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혈청내 thyroxin 결합단백(TBG)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자들은 원자력병원을 방문한 치료전 갑상선기능항진증 44예, 갑상선기능저하증 14예, 갑상선암 11예 및 정상대조군 20예를 대상으로 하여 T_3 (RIA), T_4 (RIA), FT_4 (RIA)를 측정하고 간편할 뿐 아니라 TBG 양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RIA 법을 이용하여 TBG를 측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TBG는 정상대조군에서 10.98 ± 5.53 ng/ml 이었고 기능항진증에서는 8.77 ± 4.4 ng/ml ($p < 0.01$), 기능저하군에서는 15.5 ± 5.91 ng/ml ($p < 0.01$), 갑상선암에서는 10.56 ± 5.17 ng/ml ($p < 0.01$)를 나타냈으며 TBG와 T_4 의 관계는 상관관계($r = +0.66$)를 나타내었고 TBG와 FT_4 의 관계는 역상관관계($r = -0.58$)를 나타내어 갑상선기능 항진증에서 TBG는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갑상선기능저하군에서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TBG의 변화가 갑상선 홀몬의 임상적 역할에 크게 관련함을 암시할 수 있었다.